

이용섭 시장, 민생경제 현장 점검 나선다

9~17일 코로나19 민생경제 특별주간 운영

전통시장 투자유치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이용섭 광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방문해 서민경제의 주춧돌이 되는 민생경제 현장을 살핀다.

광주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를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9일에는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동구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지역주민, 상인, 임대인, 지역문화인과 함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15일과 16일, 17일에는 금남지하상가, 비아5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차례로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외국에서 광주로 사업장을 이전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투자기업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투자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10일에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

출에 역할을 하고 있는 쉼펜퍼스를 방문해 격려한다.

11일에는 생활가전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영전자주를 방문한다. 대영전자주는 올해 1월 중국 현지 생산공장을 광주시로 이전하고 389억원을 투자해 288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대표 투자유치기업으로, 국내 복귀까지 겪은 어려움 등을 듣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인 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여성구직자와 구인기업

들을 만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전문인력 경제활동 참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업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분야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청소년·청년, 여성보육, 보훈, 어르신, 장애인 등 7개 분야의 현장을 살펴보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주간’을 운영해 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는 제14차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석명절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계층과 경영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민생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으며, 방역물품 지원, 위기계층 생계안정 지원, 자영업자 경영위기 극복 지원 등 3개 분야 26개 지원사업을 통해 추석 전에 12만1891명의 시민과 업체 등에 3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김 지사, 도정질의 답변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선준 의원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시, 추석맞이 복지일자리 생상품 판매장터 운영

8~9일 시청, 자활·노인·장애인일자리 생상품 참여

광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8~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행정동앞에서 복지일자리 생상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희망을 구입하고 행복을 담아가는 신나는 장터’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매장터는 지역 복지일자리 생상품 홍보는 물론, 복지일자리로 운영중인 사회 재가를 꿈꾸는 자활근로자, 노년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자립을 꿈꾸는 지적 장애인 등에게 근로

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상품은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애인 일자리에서 생산된 총 114개의 엄선된 품목으로 ▲수제청, 잼, 빵·쿠키, 커피·차 등 수제 먹거리 ▲전연비누, 세제, 수세미, 도마 등 생필품 ▲파우치, 키링, 손가방, 지갑, 벨트 등 공예품 등이며, 다양한 가격대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화학첨가물을 뺀 건강한 우리밀로 만든 쿠키와 빵, 신선한 과일을 이용한

수제청, 살균기능이 있는 위생적인 편백도마, 합성원료와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어묵 등 생상품이 인기 품목이다.

현장에서 바로 구매하거나 배송 예약도 받는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시는 복지일자리 생상품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해 사회취약 계층의 생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복지일자리 생상품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등 매출 증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도, 정보통신보조기 무상임대 추진

전남도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 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7일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 무상 임대’ 사업에 나선다.

사업 운영은 전남도 보조기기센터가 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대상은 전남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대상은 전남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센터는 선호도가 높은 100만 원 이상 고가 정보통신기기를 최대 1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기종별로 ▲시각장애인용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S/W 등 4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특수마우스 ▲청각·언어장애인용 언어훈련S/W, 음성증폭기, 의사

소통보조기기 등 3종, 총 8종 42대다.

임대를 바라면 10월 8일까지 전남도 보조기기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jnat.or.kr)이나 전화(061-740-1504)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0월 확정한다. 기기 분실·반납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금은 전액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2001년 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정보통신 보조기기 5,955대를 보급했다.

/길용현 기자

김대중 전남교육플랫폼 대표
내일 전남교육감 출마선언



김대중전남교육자치플랫폼대표(사진)가 전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김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언론인들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직선 1~2기 전남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낸 김대중 대표는 목포시의회의장,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이나라 기자

정기 브리핑

김원이, 조선업체서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의원은 지난 3일 현대산호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회장 이안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내협력사협의회 이안용 회장은 “김원이 의원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목표, 영암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재연장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

정에 혼신의 노력과 지원을 했다”면서 “사내협력사 협의회 66개 회원사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함을 새삼 느낀다”면서 “지속된 조선업 불황 속에서도 기업인과 노동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재연장과 뿌리산업 특화



단지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동반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남도, 목포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자체와 기업이 한데 모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문 기자

혁신도시 발전기금 갈등 봉합되나

기금설치·재단설립 공청회 15일 김대중센터
시·도·나주시, 산업연구원 기금 규모 등 청취

해당 지자체 간 갈등으로 한차례 무산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회가 다시 열린다.

6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재단설립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일 공고했다.

공청회에서는 용역 시행 기관인 산업연구원에게 기금 조성의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놓고 관계 기관인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등의 의견을 듣는다.

기금 규모, 사용처, 관리 주체 등의 연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 7월 30일 열리기로 했지만, 기금 규모 등에 이견을 나타낸 전남도와 나주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이후 세 지자체는 공청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했으며, 용역 수행 기간인 이달 말까지 개최하기로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연구원은 앞서 오는 10월 비공개로 사전보고회를 열어 세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보고회에서 해당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업연구원에서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야 해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사전에 이견을 조율해 원만하게 보고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세 지자체는 발전기금 조성의 재단 설립에 합의했지만, 출연금 조성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논란 끝에 세 지자체는 협약을 맺고 발전기금 조성의 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용역을 의뢰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
행복한 우리 Gwangju Namgu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광주남구가
앞장서겠습니다!!

열악한 지역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창출로
광주 제1의 경제·문화 중심도시 조성

~2021
광주 에너지밸리 조성

도시첨단산단(15만평), 에너지밸리 일반산단(28만평)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제비즈니스 환경조성

2018-2026
대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

양림동, 사직동, 백운광장 추진중(1,299억원)
송암동, 방림동 공모예정(공모신청 시 600억원)

~2021
광주실감콘텐츠 큐브(GCC) 건립

노후된 송암공단을 첨단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 1046억원 투입

~2021
송암산단 문화융복합 4차산업 거점 단지 조성

CGI컨텐츠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적 준비, 고부가가치 청년일자리 창출

광주광역시남구